



# 군종주보

2017년 5월 7일(제822호) 부활 제4주일(생명 주일, 상소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착한 목자, 착한 양.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잘해야 그것을 보고 배우는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크게는 교회나, 국가적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작은 단체, 가정의 문제까지 속담의 교훈대로 맑은 윗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변화와 발전은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아래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산 될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옳은 말입니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가르침 일까요? 윗물이 맑지 못했지만, 아랫물이 맑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윗물은 맑지만 아랫물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윗물과 아랫물만의 문제가 아닌 중간에 끼어 있는 ‘필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착한 목자이신지, 길 잃고 방황하는 탁한 아랫물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착한 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 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양들을, 당신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진리의 문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한 목자 아래 있는 착한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고 나를 부르는 목소리(성소)에 성실히 응답하는 착한 자녀입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이시며 맑은 윗물 이심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역시 착한 양이, 맑은 아랫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혹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내 안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이 ‘필터’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있으며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이거래(다니엘) 신부  
백두신(육군 제21사단) 상당 주일

- 제 1 독 시** 사도 2,14-17.36-41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시** 1베드 2,20-25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1-10  
**영 성 제 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진리를 살다

# 미시진례 인에서의 히느님 말씀(1) - 말씀의 식탁

오늘날 우리가 미사진례에 참석하면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독서들, 화답송, 후렴, 성가 등을 통해서 히느님 말씀을 만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해마다 같은 주일이나 축일에 동일한 본문을 봉독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니다. 묵시록의 말씀들은 아예 인용하지도 읽혀지지도 않았습니니다. 개신교 신자와 비교하면 가톨릭 신자들의 신자생활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례와 풍부한 기도전통에 의해서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히느님의 말씀, 히느님의 계시,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니다. 인간적인 증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느님의 사랑과 구원의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새롭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곳에서야 비로소 신뢰와 순명, 희망과 그에 응달하는 사랑이 가능합니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빵으로, 일로, 우리의 원의로 살아가지 않고 히느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악마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에게 향하시는 히느님의 마지막자 결정적 말씀이십니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의 증거에 귀기울이지 않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히느님, 살아 계시는 히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히느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니다.

히느님 말씀은 죽은 말이 아입니니다. 차갑거나 단지 이미 오래전에 지난 일이나 사건들을 전해주는 말이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생한 히느님 자신의 말씀입니니다. 히느님의 말씀은 신앙을 일깨우고 능력과 확신을 선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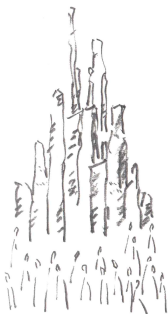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히느님이 누구이십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과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 좌절과 낙담에 생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구절을 당신의 수난으로 해석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놀라운 체험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에 너무 기뻐하며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니다. 히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의 심오한 뜻을 깨쳤음에 기뻐하며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니다. 히느님은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 살아계십니니다.

히느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성사적 활동과 개인의 기도는 경직되어 버립니니다. 이미 1세기부터 교회 안에서 수도자와 사제들이 이른 아침 성경 독서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고 자신을 말씀의 가르침과 축복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히느님 말씀과 영으로 새겨진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은 히느님 말씀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24-25절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니다.”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0,6-8 말씀의 재해석입니니다. “외쳐라! ...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히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40,6-8)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헌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 복 음 록 상



- 베영림(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어덜 보니

어덜 보고 있는거니  
너는 앞만보고  
나만 따라 오면  
되는거야.

저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상화이야기** 잠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사도 요함과 두 천사



베르나르디노 루이니(1480-1532)  
 제작 시기 미정,  
 캔버스 위 유화, 92 x 73 cm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파리

밀라노에서 활동한 루이니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추종자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남겨진 작품으로 볼 때 화가로서 인정받은 삶을 살은 듯하다.

오늘 소개할 그림만 보아도, 잠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이들을 보위하는 두 천사, 그리고 배경(어둠 속)의 사도 요한이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로 그려져 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들과 달리, 성모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는 잠들어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가올 수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왼편의 천사가 깔아놓고 있는 흰 천은 예수님의 수의를 상징하고, 성모님은 곧 이 위에 예수님을 눕히실 것처럼 보인다.

평화롭게 잠든 아기 예수님의 표정과 성모님의 우아한 손가락, 그리고 수난을 상징하는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가슴을 잔잔히 파고든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은성대 김동신 신부

◆ **교구장 동정**

- 맹호(수기사)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7일(주일)
- 파티마의 성모발현 100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 기원미사  
 때: 5월 11일(목) 14:00, 임진각
-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서품·착좌식  
 때: 5월 13일(토) 14:00, 군산월명체 육관

◆ **대리사회 상지순례**

때: 5월 11일(목)  
 곳: 인천교구 갑곶성지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5월 11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장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